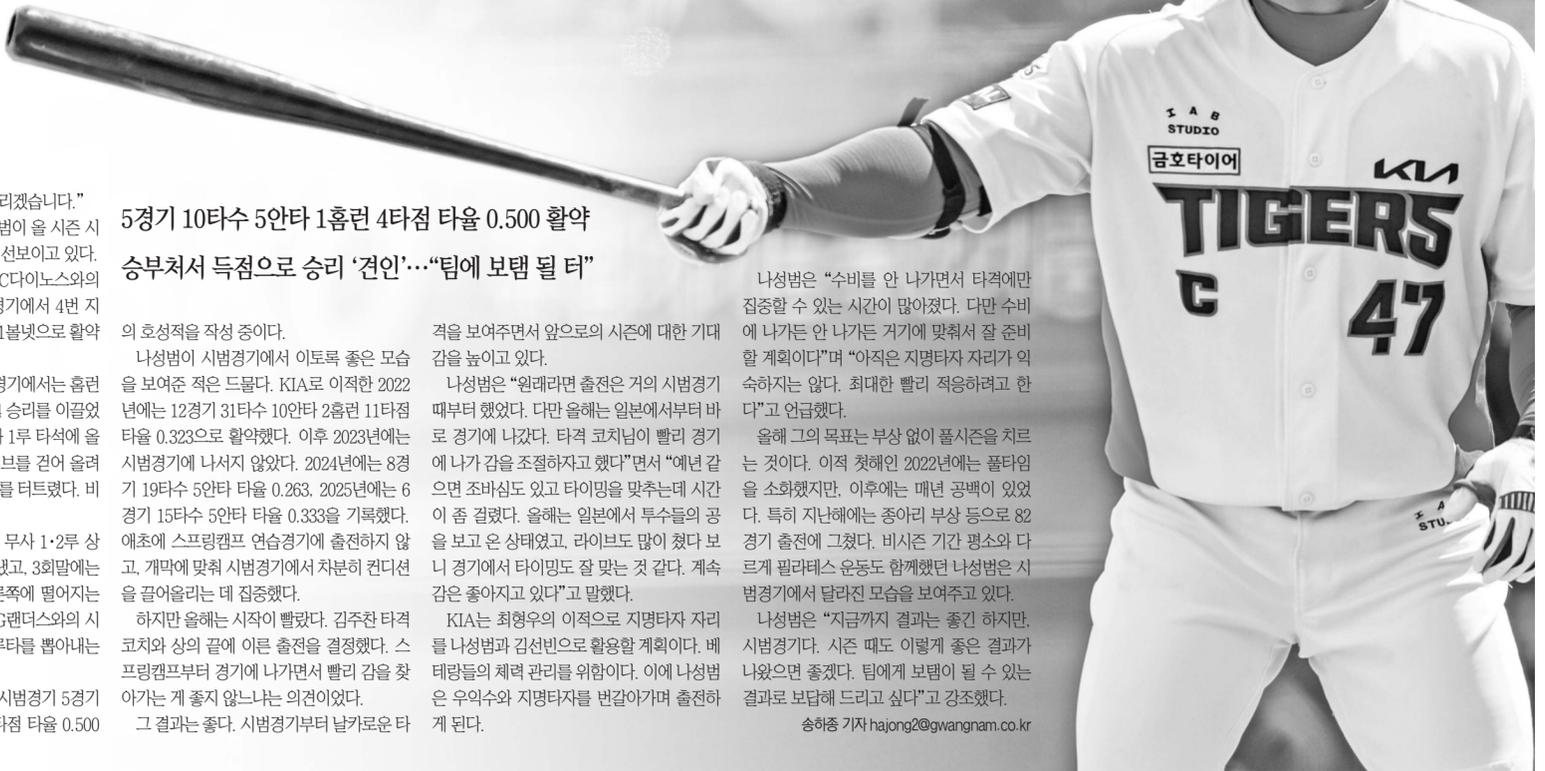


‘시범경기 맹타’ KIA 나성범 “시즌 때 결과로 보답하겠다”



“시즌 때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KIA타이거즈 외야수 나성범이 올 시즌 시범경기부터 몰온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다. 나성범은 지난 16일 NC다이노스와의 2026 KBO 시범경기 원정 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출전, 2타수 1안타 1볼넷으로 활약했다.

앞서 15일 kt위즈와의 홈 경기에서는 홈런 포까지 쏘아 올리며 팀의 5-4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이날 경기 3회말 2사 1루 타석에 올라 상대 투수 8구째 126km 커브를 걷어 올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터트렸다. 비거리 125m의 대항타구였다.

또 직전 경기에서는 1회말 무사 1·2루 상황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고, 3회말에는 선두타자로 나서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었다. 여기에 SSG 랜더스와의 시범경기 개막전에서는 4회 2루타를 뽑아내는 등 2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이로써 17일 경기 전까지 시범경기 5경기에서 10타수 5안타 1홈런 4타점 타율 0.500

5경기 10타수 5안타 1홈런 4타점 타율 0.500 활약 승부처서 득점으로 승리 ‘견인’...“팀에 보탬 될 터”

의 호성적을 작성 중이다. 나성범이 시범경기에서 이토록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은 드물다. KIA로 이적한 2022년에는 12경기 31타수 10안타 2홈런 11타점 타율 0.323으로 활약했다. 이후 2023년에는 시범경기에서 나가지 않았다. 2024년에는 8경기 19타수 5안타 타율 0.263, 2025년에는 6경기 15타수 5안타 타율 0.333을 기록했다. 애초에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개막에 맞춰 시범경기에서 차분히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올해는 시작이 빨랐다. 김주찬 타격 코치와 상의 끝에 이른 출전을 결정했다. 스프링캠프부터 경기에 나가면서 빨리 감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다. 그 결과는 좋다. 시범경기부터 날카로운 타

격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나성범은 “원래라면 출전은 거의 시범경기 때부터 했었다. 다만 올해는 일본에서부터 바로 경기에 나갔다. 타격 코치님이 빨리 경기에 나가 감을 조절하자고 했다”면서 “예년 같은 조바심도 있고 타이밍을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올해는 일본에서 투수들의 공을 보고 온 상태였고, 라이브도 많이 쳤다 보니 경기에서 타이밍도 잘 맞는 것 같다. 계속 감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KIA는 최형우의 이적으로 지명타자 자리를 나성범과 김선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베테랑들의 체력 관리를 위함이다. 이에 나성범은 우익수와 지명타자를 번갈아가며 출전하게 된다.

나성범은 “수비를 안 나가면서 타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다만 수비에 나가든 안 나가든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할 계획이다”며 “아직은 지명타자 자리가 익숙하지는 않다. 최대한 빨리 적응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그의 목표는 부상 없이 풀시즌을 치르는 것이다. 이적 첫해인 2022년에는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이후에는 매년 공백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종아리 부상 등으로 82경기 출전에 그쳤다. 비시즌 기간 평소와 다르게 필라테스 운동도 함께했던 나성범은 시범경기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성범은 “지금까지 결과는 좋지 않지만, 시범경기다. 시즌 때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결과로 보답해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핀수영, 국대선발전 겸 전국학생대회서 ‘메달 잔치’

광주체육 강운호·김원우 2관왕 활약 ‘종합 준우승’
광주체고·남부대·광주시체육회 금메달 선전도

광주 핀수영이 ‘2026 국가대표 선발전(2차) 겸 제34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무더기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체육은 최근 부산 사직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다수의 금메달 획득과 대회신기록을 달성으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대회에서 광주체고의 활약 또한 이어졌다. 남중부에서는 강운호(3년)가 무호중 잠영 50m에서 17초73의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운호는 이어 표면 100m(42초00)와 200m(1분33초27·대회 신기록)를 석권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여중부에서는 오수현(2년)이 표면 400m에서 3분27초51의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여울(2년)은 표면 100m 은메달(45초50)과 50m 동메달(20초74)을 따냈고, 이정운(1년)은 짝핀 50m에서 동메달(26초58)을

보냈다. 광주체육은 계영 200m에서도 1분27초58로 우승하며 전력을 과시했다. 그 결과 광주체육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같은 대회에서 광주체고의 활약 또한 이어졌다. 남중부에서는 강운호(3년)가 무호중 잠영 50m에서 17초73의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운호는 이어 표면 100m(42초00)와 200m(1분33초27·대회 신기록)를 석권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여중부에서는 오수현(2년)이 표면 400m에서 3분27초51의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여울(2년)은 표면 100m 은메달(45초50)과 50m 동메달(20초74)을 따냈고, 이정운(1년)은 짝핀 50m에서 동메달(26초58)을



‘2026 국가대표 선발전(2차) 겸 제34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무더기 메달을 획득한 광주체육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강운호, 김원우, 원쪽 아래부터 오수현, 김상아, 이정운, 전초아, 김여울. 사진제공=광주체육

에 한성 계영 400m에서는 3분07초21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건졌다. 대·일남부에서도 메달 행진이 펼쳐졌다. 박정우(남부대 1년)는 무호중 잠영 50m와 짝핀 2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시체육회 선수단이 출전한 일

반부에서는 양지원이 짝핀 100m 금메달과 200m 은메달을 획득했다. 양현지는 표면 2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황윤형은 표면 400m·800m에서 각각 동메달을, 표면 1500m에서는 은메달을 기록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68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활약한 광주 서석중학교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검도회

서석중 허경도, 전국검도대회 개인전 ‘우승’

중등부 결승서 조보민 제압
전국대회 3연속 제패 기록
“전국소년체전 우승 목표”
용봉중, 여중부 단체전 정상

광주 서석중학교 허경도가 ‘제68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남자 중등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허경도는 최근 전남 강진군 강진 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중등부 개인전 결승에서 조보민(순천왕윤중)을 2-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허경도는 예선부터 8강까지 흔들림 없는 경기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같은 학교 동료인 권민수와 맞붙어 치열한 접전 끝에 2-1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결승에서는 독보적 기량을 선보이며 상대를 제압,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우승으로 허경도는 지난해 12월 열린 추계 전국 검도대회와 올해 2월 열린 2026 SBS배 전국 검도왕대회에 이어 전국대회 3연속 우승을 기록했다.

같은 학교 오승현 역시 어려운 상대들과의 경기 속에서도 침착한 대응으로 4강에 진출했다. 비록 준결승에서 조보민에게 0-2로 패해 공동 3위를 기록했지만, 첫 개인전 입상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여중부 단체전에서는 용봉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전국대회에 처음 출전한 용봉중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인상 깊은 활약으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특히 용봉중 선수단은 모두 오지검도관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허경도는 “남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도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며 “5월에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팀 주장으로 서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팀을 잘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경 서석중 부장은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단체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남은 전국대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도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 본격화

1차 실무자회의...경기단체 관계자 등 60여명 참석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다. 17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남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준비를 위한 1차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장애인체육회, 전남

도교육청, 특수학교·학급 관계자, 경기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대회 개요, 종목별 참가 요강, 선수등록 업무 매뉴얼 등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참가신청은 18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전남지역 9개 특수학교와 22개 시·군 특수학급의 학생선수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250여명 이상의 선

수 참가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수등록 절차를 강화했다. 학생 선수는 본인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강화된 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업무 매뉴얼을 학교 담당자에게 공유했다.

곽준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까지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전남도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구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주최로 열린 1차 실무자회의 모습.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